

내가 왜 떴게?



대명(大亡)의 1위는?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투표 :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스타들에 대한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그런데 투표내용이 웃프다. '박수치고 싶지 않은 군 혜택 아시안게임 스타'의 순위를 매기는 투표다. 이런 웃픈 투표를 진행한 곳은 익사이팅디시. 기상천외한 설문조사로 종종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 썩 영예롭지 않은 랭킹의 2위와 3위는 축구대표팀에서 나왔다. 2위는 황희찬(독일 함부르크SV), 3위는 골키퍼 송병근(전북)이 뽑혔다. 그렇다면 대명(大亡)의 1위는? 프로야구 오지환(LG)이 압도적 1등이다. 혹시 예상하셨는지.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제목만 보고도 누군지 알았다".

Ctrl+C와 Ctrl+V



●권상우·손태영, 가족사진 : 우월한 DNA는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권상우·손태영 부부가 결혼10주년을 맞아 아들, 딸과 함께 패션 매거진을 통해 가족사진을 공개했다. 부모 DNA 덕인지 아이들도 외모의 싸수가 초록초록하다. 부부는 "아이들 덕분에 더욱 결속하게 됐다. 배우로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댓글들이 재미있다. "어린 권상우가 손태영과 앉아있네?", "손태영은 전생에 나라를 수십 번 구했나봄", "혀는 달지 마라(?)", "부모가 아니라 애들이 부럽네", "아들은 아빠 얼굴 복붙인가".

이젠 내가 위로해줄게



윤승아

●윤승아, 반려견 : "반려견을 키우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윤승아가 평소 큰 관심을 보여 온 유기견 기부 프로젝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소외받는 이들과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윤승아가 기획하는 유기견 기부마켓은 '아보카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 반려자(김무열)도 반려견도 잘 만난 윤승아씨, 앞으로도 선한 일 많이 해주세요. 아침, 강아지가 심장사상충에 걸려 윤승아씨 인스타에 질문했다가 정성스런 답변 받았다는 분. 지금은 약 잘 먹고 펄펄 뛰어나다고 있습니다.

10월 A매치땐 벤투감독이 뽑은 새 팀이 뜬다

4년뒤 염두...대표팀 세대교체 중요
한국축구 뿌리 K리그서 밑그림 의지
선입견 없는 벤투 감독의 눈에 기대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클지도 관심집중

한국축구는 2022카타르월드컵 여정을 위해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에게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다. 코스타리카(2-0승)~칠레(0-0 무)로 이어진 9월 A매치 시리즈는 벤투 감독의 공식 데뷔무대였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

A매치 2연전을 마치며 벤투 감독은 "충분히 (선수들을) 분석한 뒤 선발을 결정하겠다. 일부가 바뀔 수 있다. 대표팀을 선발할 때 언제든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은 올해 A매치 4경기를 더 갖는다. 10월 우루과이와 파나마를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친선경기를 펼친다.

24명이 출격한 9월과는 다름 대표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선발된 태극전사들은 2018러시아월드컵이 기준이 됐다. 월드컵 멤버들이 뼈대를 이뤘고,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위원장 김관문) 스카우트 소위원회에서 조연한 몇 명이 합류했다. 10월부터가 사실상 벤투 감독의 의지와 판단으로 구성될 대표팀이다.

이미 벤투 감독은 K리그1 현장 방문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5일 인천 유나이티드-수원 삼성전이 열린 인천전용구장을 찾았고, 16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강원FC-상주 상무전을 관전했다.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은 태극전사들의 일부 변화를 예고했다. 우루과이~파나마를 상대할 10월 A매치 2연전부터 당장 '달라진' 대표팀이 출항할 전망이다. 16일 춘천을 찾은 벤투 감독(오른쪽)이 김영민 코치와 함께 강원FC-상주 상무의 K리그1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선수 체크와 분위기 파악이다. 벤투 감독은 K리그1 4경기(8월 FC서울-포항 스틸러스전, 상주-전북 현대전 포함)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장소가 겹치지 않는다. 상주만 두 번 체크했을 뿐 매치업도 전부 다르다.

한국축구의 뿌리이자 젖줄인 K리그에서 대표팀 리빌딩의 가능성을 엿보고 밑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러시아월드컵을 책임진 신대용(48) 감독에 앞서 대표팀을 이끈 율리 슈틸리케(64·독일) 감독이 특

정 경기장만 방문해 의문을 자아낸 것과 다른 행보다.

관심은 '변화의 폭'이다. 4년 뒤를 바라보는 대표팀이 직면한 핵심 과제가 세대교체다. 당장 전임 캡틴 기성용(29·뉴캐슬 유나이티드)이 내년 1월 아시안컵 이후 태극마크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 젊은 피 수혈이 불가피하다.

김학범(58) 감독과 함께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23세 이하(U-23) 선수들이 코칭스태프의 고

민을 털어줄 전망이다. AG를 마친 뒤 대표팀 캠프에 합류해 연착륙을 알린 황인범(22·아산 무궁화), 김문환(22·부산 아이파크) 이외에 상당한 얼굴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다.

매끄러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기존의 대표팀, 또 특정 선수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은 벤투 감독이 진행하는 '흙 속의 진주 찾기'는 어떤 결실을 맺을까. '벤투호 2기'는 다음달 8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강화훈련을 시작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88올림픽의 영웅들 영광의 벽에 새기다

30주년 맞아 기념행사 열려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서울올림픽 개최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광의 벽' 제작식이 열렸다. '영광의 벽'에는 30년 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488명, 선수단 645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또한 헌신적으로 올림픽을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담았다.

이날 제작식에는 서울올림픽 태권도 김세혁 감독, 역도 양무신 감독, 육상 정재근,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한 조직위원회 및 선수단의 이름이 새겨진 '영광의 벽' 제작식이 열렸다. 뉴스시

임춘애 등 지도자와 선수들, 이형용 서울올림픽자원봉사자회 회장 등이 참석해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영광의 벽'을 함께 제작했다.

30년 전 올림픽에 정춘의 열정을 쏟아부었고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사들은 자

신과 동료들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눴다. 서울올림픽성화봉송 최종 주자였던 임춘애도 자신의 이름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기뻐했다.

이날 제작식에 이어 서울올림픽파크텔

에선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방탄’ 움직이는 아미, 야스시와 협업 없던일로

아미 ‘우익·여성혐오 작가’ 주장에
소속사 빅히트, 3일만에 철회 발표

딱 3일 걸렸다. 팬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된 후 소속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결과에 반영하기까지 시간이다. 방탄소년단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인 '아미'(팬클럽)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 시킨 사례로 남게 됐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유명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6일 방탄소년단 공식 팬카페를 통해 "11월 발매 예정인 일본 싱글 음반 수록곡이 제작상의 이유로 변경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13일 방탄소년단의 일본 새 음반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걸 그룹 AKB48을 기획한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가사를 쓴 '버드'를 수록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우익, 여성혐오 작가'와 협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의 전량 폐기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각종 게시판과 SNS 등에 올리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야스시는 일본의 '국민 아이돌' AKB48을 프로듀싱한 인물. AKB48가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욕일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공연해 국내 팬들의 반감을 샀다. 일부에서는 여성성을 노골적으로 담은 노랫말로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협업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팬들은 "방탄소년단과 아키모토 야스시와의 협업이 방탄소년단의 음악 행보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며 협업 중단을 요구했고,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빅히트는 15일 "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실 연예기획사가 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단지 팬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쉽게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히트는 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미'라는 팬덤으로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늘 "팬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분들"이라고 존칭을 쓰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던 만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위기관리 매니저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